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North-Korean-Refugee Women'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and Reemergence of Trauma Experience

성정현
협성대학교

Jung-Hyun Sung(sung438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탈북여성들이 남한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남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재현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5명의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굶주림, 투옥, (성)폭력, 인신매매, 가족관계의 단절, 죽음의 목격 등 극단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거 기억의 회상과 회피, 악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이들은 남한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낙인, 적과의 동침 상황, 끝나지 않는 빈곤, 용서불가, 그리고 자살의도 등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을 겪고 있었다. 이런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 경험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입국에 대한 후회와 분노,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철회와 무희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정서의 근간에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취업 및 고용지속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 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민간기관과의 연계망을 확보하고, PTSD 및 그 외상경험의 재현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탈북여성 | 트라우마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차별 | 낙인 | 트라우마의 재현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experience of trauma caused b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stigma from South Korean. For this purpose of this study, focus group interview methods are used. The participants are five women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they were from 20s to 50s.

From the outcomes of this study, I find out that they had experienced to put in prison, to let arrest to let human traffic, and sexual or physical assault. Now they have PTSD(Post Trauma Stress Symptom) of nightmare related with past trauma, avoid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imilar situations, and retrospection and memorization of negative experiences. In that situation, they also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caused by lack of understanding of their suffering in South Korea. And almost of them suffer from poor situation economically and physically. Participants regret their entry to South Korea and perceive that their hope has gone. And they have anger of Korean's discrimination and stigma and they feel suicide impulse after experiencing very difficult situation. These negative experiences affect their PTSD and make reemergence of trauma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I proposed the practical suggestions which have affected decreasing the PTSD.

■ keyword : | North-Korean-Refugee Women | Trauma | PTSD(Post Trauma Stress Symptom) | Reemergence of Trauma | Discrimination |

I. 서론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을 탈출한 이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 현재 약 2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탈북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 중 일부는 재북 시절과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캄보디아 등 제 3국에 머물다가 다시 송북 되고 또 탈출하면서 죽음을 목격하거나 인신매매나 성폭력, 강제결혼 등과 같은 심각한 외상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탈북주민중 상당수는 남한에서 생활하면서도 심리·정서적 불안과 공포심, 반복적인 회상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정서와 신체화 증상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이 과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한에서의 사회문화적 환경 역시 이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릎 쓰고 탈북했지만, 이들은 남한에 정착하여 살면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머물거나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되는 경험, 그리고 남한의 법제도에 대한 무지로 인한 혼란과 배신감, 북에서의 나쁜 소식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것은 복합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다[5]. 따라서 탈북과정과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겪은 외상과 함께 남한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는 외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PTSD 증상은 다양한 요소 중 특히 사람에 의한 것이고 반복적이며, 다양하게 축적되고, 악의적 의도 등 대인관계에 의해 가해질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7]. 이런 PTSD 요인에 비추어볼 때 남한에 입국하여 하나원에 입소하고, 또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해 나갈 때까지 이들의 생활은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측면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과정동안 이들이 탈북자로서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이것이 트라우마를 경험하여 PTSD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사소하거나 작은 자

극이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외상사건과 연관시켜 불안과 분노, 긴장, 그리고 악몽이나 회피 등과 같은 PTSD를 겪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들이 경험하는 남한에서의 트라우마가 기존의 외상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트라우마 경험을 재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정신의학과 사회복지학, 문화인류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에 활성화되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내외적 심화를 이루어오고 있다[21]. 그러나 연구들은 탈북동기와 국내 입국 후의 생활실태 및 경험 [2][4][8][9],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와 법규 및 인식개선 문제[10][11], 한국 사회 적응 및 개인적, 심리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적응[12-14]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과 관의 역할 및 기능[15][16], 그리고 탈북여성들이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실태와 심각성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일반, 법과 정책적 제도, 여성상, 여성이미지 등에 집중되어왔다[2][3][6][12][14][21].

이중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남한에 입국하기 전에 경험한 외상 경험과 그로 인한 PTSD의 실태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들은 PTSD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치료적 접근과 함께 맞춤형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외상으로 인한 PTSD의 개선을 방해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근래에 경험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탐색과 접근 또한 PTSD 증상의 완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과거의 외상사건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불가능한 반면, 근래에 경험되는 트라우마는 내외적 통제가 가능하고 또 탈북여성의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입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남한에서의 경험이 이들의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경험과 그들의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 문제를 탈북여성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1.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통일부(2013)에 따르면, 2001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8월 현재 약 25,560명에 이르고 있다. 성별을 보면, 1998년도까지는 여성의 비율이 약 12%에 머물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17].

이들의 탈북 동기도 60-70년대에는 체제에 대한 불만 요인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외에 자유를 찾아서,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족을 따라서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9][11]. 이런 탈북 동기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 후 생활에 대한 기대와 욕구, 그리고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현황

구분	~'98	~'01	'05	'11	'12	'13.5 (잠정)	합계
남	831	565	424	797	402	142	7,718
여	116	481	958	1,909	1,107	454	17,492
합계	947	1,046	1,382	2,706	1,509	596	25,210
여성비율	12%	46%	69%	70%	72%	70%	69%

출처 : 통일부. 2013. 정착지원과

한편, 2012년도를 기준으로 입국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먼저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이 다

표 2.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재북 직업별 재북 학력별 유형

(~'12. 10월 입국자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연령	누계(명)	999	2,835	6,621	7,421	3,983	1,237	1,105	24,201
	비율(%)	4	12	27	31	16	5	5	100
직업	구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등	계
	누계(명)	12,432	9,160	394	487	197	896	635	24,201
	비율(%)	50	38	2	2	1	4	3	100
학력	구분	취학전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명)	644	217	1,580	16,993	2,230	1,711	826	24,201
	비율(%)	3	1	6	70	9	8	3	100

출처 : 통일부 .2013. 정착지원과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 수용자 제외

양하지만 20대와 30대가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재북 당시의 학력은 고등학교가 약 70%, 전문대졸 이상이 약 17%이며, 직업실태는 무직부양이 약 50%, 노동자가 약 38%로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탈북이주민의 적응을 위한 지원에 있어 성별과 함께 직업 및 결혼의 문제,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의 문제 등과 같은 연령별 발달과제, 그리고 직업 능력 등을 차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7].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제 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는 약 1년 미만이거나 혹은 국경선을 넘어 바로 입국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중국 등 제 3국에서 약 4년 이상을 체류하는 등 체류기간이 장기화된 증가하고 있다[11].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이들 중에는 중국 등지에서 강제결혼이나 인신매매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또 그만큼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하게 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관심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낮은 연령층이 많은 만큼 만약 이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면 이것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PTSD 실태와 증상

1)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외상사건과 PTSD 실태

외상성 사건이란, 신체적·성적 폭행, 전쟁, 교통사고, 산업재해,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 혐오적이거나 생명에 위협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개인이 극도로 심한 외상 사건에 노출된 이후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과 사고 경험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증후군의 일종을 의미한다[3][7][19].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건물붕괴나 지하철 참사 등과 관련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보고되어 왔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재북 시절 뿐만 아니라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탈출발각에 대한 생명의 위협, 외국생활(낮선 땅, 낯선 얼굴, 낯선 언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체포에 대한 불안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한 가족과 친지의 죽음과 상실, 타인의 공개처형이나 구타, 처벌 목적, 인신매매 등의 외상은 종전의 외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1][3][5][6].

그 실태를 보면, 2001년도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조사한 홍창영(2004)의 연구결과, partial PTSD가 31.8%, 그리고 full PTSD가 27.2%로 나타났다[3]. 즉 응답자의 약 1/4~1/3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도 이후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의 보호관리 과정이 끝난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주연(2006)의 연구에서는 약 45.1%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으로 나타났다[12]. 국경없는 의사회(2005)의 연간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 37.6%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18.2%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리고 18.8%는 불안장애, 22.2%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마지

막으로, 김연희 등(2010)이 2007년도 입국자 584명을 전화 면접한 결과, 약 5.2%(26명)가 PTSD로 진단되었으며, 약 6.6%(33명)가 partial PTSD로 진단되었고, 약 48.4%(242명)는 불안과 우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² 그리고 모든 PTSD에서 여성의 유병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과 불안 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외상 사건은 탈북 전부터 남한 입국까지의 과정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PTSD 유병율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선 하나원에서 거주하는 대상자와 지역사회 거주하는 대상자 간 차이와 표집방법의 문제, 그리고 조사에 활용된 정신건강척도의 문제 등에 기인한다[4].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남한에 입국하여서도 정서적으로나 사회경제적 활동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죽음과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경험을 간직한 채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차별과 몰이해, 비인격적 인 대우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다시 이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존의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대상자는 개선됨으로써 국내 입국 후 제반 요인에 따라 PTSD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남한에서의 경험이 PTSD의 중재 혹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북한이탈여성의 PTSD 개선을 통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남한에서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PTSD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악몽이나 끔찍한 사건에 대한 회상, 또는 혼란스런 기억을 통해 그 사건을

1 DSM-IV기준에 의하면, 개인의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1개 이상의 재경험 증상과 3개 이상의 회피/마비증상, 2개 이상의 과각성 증상이 모두 있어야 하며, 이를 증상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를 일으킬 때 full PTSD로 진단된다. 그러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PTSD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연구자들이 재경험과 마비/회피, 과각성 증상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와 세 영역의 조합으로 partial PTSD를 진단하였다[3].

2 남민연구에서 일반적 임상군 선별기준이 되는 평균 1.75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경우를 의미함

다시 경험하거나 과각성, 회피 등의 증상 때문에 남한에서도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중, 재경험(reexperience)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현저한 특징으로서, 외상 당시의 장면이나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다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험은 사소한 자극이나 단서를 통해 당시의 상황으로 현실을 치환하거나 혹은 외상과 관련된 침투사고와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으로서 대인 관계적 외상경험이 있을 때 더욱 심각한 경향을 보이지만 [7], 분명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과각성(physiological hyperarousal)은 재난당시를 연상할 만한 단서에 민감해지고 주변의 모든 감각적 자료에 지나치게 경계하는 생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수면장애나 파민반응, 외상적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에 대한 지나친 경계나 각성 등의 특징을 갖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회피(avoidance)는 이러한 단서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기전으로 발동하여 모든 위협한 자극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외상적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의 회피, 중요한 활동에 대한 흥미상실, 사회적 고립, 위축, 정서적 반응의 둔화 등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19][20]. 이러한 회피는 주로 대인 관계적 외상경험이 있거나 여성인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또 용서와 함께 PTSD 증상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9].

이 외에 우울증과 그로 인한 비관적인 전망, 폭력, 자살행동의 가능성 또한 외상경험의 흔한 반응중 하나로 들 수 있다[6][22].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외상사건은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신체적 손상과 신체화 장애 혹은 정신신체장애 등을 보임으로써 병원을 전전하는 양상을 나타내거나[5] 심한 불안, 초조감, 사회적 위축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이런 증상은 남한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취업 여부나 좋지 않은 건강의 영향을 받는다. 홍창영(2004)이 같은 대상을 3년 이후에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는 약 88%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3].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할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생활과정

에서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또 시간의 경과, 거주지, 성별, 연령, 직업유무, 그리고 건강과 사회적 교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4][12][14]. 따라서 남한에서의 생활경험 중 이들의 PTSD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착과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탈북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별 분과학문의 배경에서 제한된 변수로 분석을 시도하거나 과거의 외상 사건의 경험 및 그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실태에 치중함으로써 남한에서의 경험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으로 인한 PTSD를 갖고 있는 탈북여성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으로 인해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인 연구방법 중 초점집단면접 방법(focus group interview methods)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PTSD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탈북 이후에도 외상으로 인한 증상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9]. 이는 곧 탈북이주민의 증상완화를 위한 다각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수요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상의 경험과 이에 기여하는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탐색적 차원의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 후 중국 등 제 3국에 체류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송북된 경험을 가진 경우는 북한에서 일대일의 방식으로 취조를 받거나 혹독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상기시키는 일대일의 면접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연구참여자들이 동병상련과 동료애를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태로서 집단면접방법을 활용하였다.

셋째, 외상을 경험한 탈북여성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어떤 증상과 어려움에 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탈북여성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트라우마의 재경험을 겪고 있으며, 그 고통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적 연구는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색출하는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는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30~40대의 탈북여성 5명이다. 조사는 집단면접 1회와 개별적인 서면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3명씩 집단면접의 형태로 각각 2시간씩 진행되었다. 그리고 서면 답변은 녹취 후 의문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변한 후 연구자에게 송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면접에서는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설문지에 표기된 탈북과정에서의 외상경험과 남한사회에서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PTSD의 증상과 그 증상이 더욱 심하게 경험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한편 참여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수준과 위험군 여부를 선별하는데 활용되는 도구는 강성록(2001)이 개발한 '탈북자 외성척도'중 외상증상척도를 수정·보완한 서주연(2006)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지난 7일간의 외상증상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위험군 여부를 선별하기 위해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3,7,8,11,14번)과 회피 및 마비(1,2,4,12,15,16번) 각성반응의 증가(5,6,9,10,13번)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면접 자료는 현장노트와 녹음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축어하여, 기술과 분석 및 해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기술 및 분석과정에서 의미 이해가 어렵거나 다른 사례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서면 답변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료는 면접 대상자별로 2회 이상 정독하였으며, 면접 자료를 축어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도를 높이고, 자료수집기간동안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각 사례들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주제 형태로 다시 서술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총 5명의 여성이며, 연령은 30대 2명, 40대 2명, 50대 1명이다. 이 중 3명은 자매관계이나 탈북과 입국 시기, 그리고 제 3국 체류 경험 모두 달랐다. 현재 A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B는 중국에서 함께 살았던 남편을 초청하여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의 주된 탈북 동기는 '굶주림과 자유의 갈망', '신분불안과 인신매매로부터의 탈출'이었으며, 남한으로 입국한 이유는 남한이 '자유를 찾고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산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또 일부 가족이 남한에 정착하였기에 함께 모여 '가족으로 살기 위함'이었다.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탈북 연도	체류국 (기간)	거주 기간	직업 (북한/현재)	소득	건강	동거 가족	척도 평균 점수
A	56	고졸	1999	중국, 캄보디아 (10년 4월)	28개월	사무원/무	43-46	나쁨	단독	3.43
B	36	고졸	1998	중국 (8년 10월)	70개월	노동자/주부	100	나쁨	부부와 자녀	2.82
C	45	고졸	2005	중국 (4년 3개월)	53개월	군인/주부	98	나쁨	자녀	3.56
D	32	고졸	2004	제 3국(6년)	29개월	노동자/사무직	120	건강함	자녀	2.81
E	45	고졸	1998	중국(14년)	3개월	노동자/무	60	나쁨	자녀	3.81

이들의 소득상태는 1인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수를 고려한 현금급여 43만원~98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건강상태는 현재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연령이 가장 낮은 E를 제외하고 모두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다. 참여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수준은 평균 3.29점을 나타냈으며, 특히 C와 D는 증상수준이 높고 세 가지 영역 모두 높아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와 A는 외상의 재경험 영역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2. 탈북여성이 경험한 외상 사건과 PTSD 증상

1) 탈북 후 남한 입국까지의 경험한 외상 사건

(1) 투옥

A와 C는 탈북 하였다가 중국 공안당원에게 붙잡혀 다시 복송된 적이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감옥생활을 했고, 구타를 당했으며, 인간으로서는 겪기 힘든 모욕을 받았다.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다시 탈북을 하였고, 중국에 있다가 붙잡힐 때에는 그동안 모아왔던 돈으로 벌금을 내면서 복송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다.

감옥 가서 3-4년에 한 번씩 벌금 물다가 아오지 잡혀가지. 3번 벌금내고 4번째부터 복송해가지. 마음이 저러 죽겠지 4년 났는데. 속이 타들어가고(A)

(2) 도망과 체포

참여자들은 탈북 후 중국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도망을 다녔다. 일 노동을 하다가도 북한 여성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임금도 받지 못하고 도망을 나와 한테서 잠을 자거나 낱밤을 새는 날을 허다하게 보냈다. A는 중국에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사는 내내 가슴을 졸이고 살았고, C는 도망을 치다가 시골 농촌의 벼짚사이, 화장실 밑, 그리고 옥수수밭, 산속에서 밤을 보냈다. 시골의 철쭉같이 어두운 밤에 짐승들이 오가는 가운데 신경이 곤두선 채 뜯눈으로 새우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도망 다니던 끔찍한 경험들이 이제는 이들의 몸에 병과 질환으로 남아 다시금 그 때를 회상하게 하는 상처로 작용하고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0년 4개월 살았는데 안 붙잡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천막에서 이삼일이고 낮 밤이고 자요. 거기서 뉴마티스관절 오고 치질 오고 했지. 겨울 같으면 거기서 자질 못하지. 겨울엔 벼짚장채논담에 거기다 움을 파놓고 이불 같은거 허질한거 파놓고 그 안에서 숨어서 자지. 숨어서 이거 근데 다 헤친단 말야 그럼 잡히지. 소 여물처럼 거거 거거 숨지. 다 들춰보는데 거기다 이불 파놓고 거기서 자고(A).

(3) 인신매매와 (성) 폭력

C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줄 알고 간 집에서 장애인과 강제결혼을 하였다. 어린 나이에 결혼에 대한 기대나 가족에 대한 환상이 무자비하게 깨어지고 가족도 아니고 집안 노동자도 아니며, 낮에는 일꾼이고 밤에는 성노예와 같이 가정생활을 이어갔다. 그 생활이 끔찍해서 도망을 나왔다가 잡혀 무자비하게 매를 맞곤 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참여자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도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결국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은 외로움을 더욱 깊게 했다.

나가 스무살인데 육십 넘은 할아버지한테 팔리고 안그럼 장애인한테 팔리거든요. 장애인한테 가서도 장애인한테 팔려가는데 그 집 가서도 팔린지 몰랐어 일시키라고 데려온줄 알았지. 팔려온 줄까진 몰랐지. 그리고 팔려온 줄 알고는 그 안사람 매가지러가고 때리고 감시가 붙고. 그런 생활 하다가 도망칠려면 매를 맞고. 또 개처럼 천대받다가 또 도망치다 잡히면 그집 형제들한테 맞고 또 도망치다 잡히면 맞고...우리는 그냥 성 노예지요. 성노예. 잡혀서도 우린 중국 공항에서 잡혀서도 임신부인데도 그 사람들은 성추행을 하는 거야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 성추행 하는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사람 표현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정신병 안 걸린거 이렇게 된 것까지만 해도 다행이라고(C)

탈북여성들은 중국에 도착한 이후 살길이 막막해지면 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혹은 성매매업소를 인신매매되기도 한다. 돈을 벌어 굶주림과 헐벗음을 벗고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하는 중에도 성폭행을 경험하였다.

B는 중국에서 배우자에게 많은 매를 맞았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해 추운 겨울 맨발로 뛰쳐나와 숨고 추운 줄도 모르고 공포에 떨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여자라는 인식하에 낮은 대우를 받거나 폭력에 시달리기 일쑤였으며, 이런 폭력과 성폭력은 분노와 두려움, 악몽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

북한여자들이 불쌍한 게 성매매 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일해도 돈을 못 받고 성노예나 성폭행 당해도 어디가서 말할 다룰 곳이 없었고. 팔려가도 우리 너 돈 주고 사왔어 해도 말 못하고. 브로커들한테 성폭행 성추행 당한게 얼마나 많아. (C).

(4) 차별과 배신

참여자들은 탈북 후 강제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고 살았기에 북한의 가정에서처럼 자신은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부간 갈등이 생기면 배우자와 그 가족들이 언제든지 신고를 했으며, 간혹 다시 인신매매를 헤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이들은 가장 친밀해야 할 대상인 배우자나 가족으로 지위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고, 타인 앞에서 모욕을 당해도 배우자나 가족이 보호해주지 않았으며, 또 다른 남성에게 팔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탈출의도를 갖고 있었다.

사람취급도 안하고 북한에서 왔다고 조금 어떻게 한다고 해도 신고한다고 하고 같이 자는데도 조금만 그래도 신고하거든요 막 전화하는 것 같고 그러고. 연변에서도 막 전화해요 칼들고(B)

(5) 죽음의 목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탈북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경험은 죽음의 목격과 본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다. 중국에서 자녀를 잃고, 또 북한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힌 사람들과 가족들이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본인도 총살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겪었다. 또 탈북과정에서 친길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선을 넘어야 했던 경험은 살아남은 자로서의 희열과 기쁨보다는

고통과 공포심으로 기억되고 이들의 삶에 불안으로 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난 그때 와가지고 23살에 임신했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그 유산을 했거든요. 내 혼자 앉아가지고 했는데 애가 손 발 다 달렸고 눈이고 남자에 고추도 다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굶었다니까요. 북한서 왔다고 애 낳지 말라 해서 남자애를 굶었어요(B)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사건은 크게 신체적 혹은 물리적 외상과 대인관계에서의 외상,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심리적·정신적 수준의 외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그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탈북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 악몽과 수면장애

참여자들은 모두 악몽에 시달렸다. C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맞고 또 경찰한테 붙잡힐까봐 도망 다니던 사실들을 악몽을 통해 재경험 하고 있었다. B와 E는 중국에서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꿈을 꿴으며, A는 중국에서 밤새 경찰을 피해 쪽잠을 자던 기억 때문에 잠을 설쳤다. 또 탈북 이후 중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두고 온 자식이 생각나 밤새도록 자식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꿈을 꾸기도 했다.

어떤 꿈 꾸냐면 나는 북한 가게 되서 경찰이 잡아가게 되는 그런 꿈 꾸거든요. 너무 편안해서 그런 것 같아 요즘 우리 아들이 잃어버려서 아들 찾느라 계속 헤맨단 말예요 깨면 막 서글프고 맘이 안좋은지(B).

꿈에서도 그 생각해요 나는 잡히면 총살감이다 나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총살감이다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 치초 꿈에서 자꾸 항상 그런 공포하고 그런 속에서 살았으니까(E)

D는 중국에 살면서 낳은 자식을 데려오지 못했다. 그리고 A는 홀홀단신으로 입국하였으며 자녀를 만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자녀를 데리고오자 하였으나 결국 노모에게 위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가족문제가 한국에 살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돌덩어리와 같은 짐으로 자리 잡고 있어 꿈에서 자녀를 찾으러 다니곤 한다.

저희 엄마가 북한에 있으니까 엄마가 벌써 70이 넘었어요. 엄마도 어찌면 자기몸 지탱하기 바쁘는데 제 자식때문에 (A)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의 재경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탈북 이후 중국에서 경찰에 붙잡혀 송북될 것에 대한 두려움, 중국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폭행, 그리고 자식과 부모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외상 사건의 재경험은 실제 경험과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재경험은 남한에 입국한지 몇 달 되지 않은 E부터 수년을 살고 있는 C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고 다시 잠을 청하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이들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장애는 결국 낮 동안의 가정생활이나 지역사회 활동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제간에 나는 말을 낮에도 꿈에서 밤에도 꿈에서 막자다 깨고 자다 깨고 잠을 자질 못 하겠어 생각날까봐 옆에 사람이 없으면 베개를 이렇게 끌어안고 잔다고. 신경이 예민해요 지나가다 소리만 나도 펍 깨고, 중국에서 자다가도 어느 순간 옆에 병사들이 얼쩡거리고 이러니까 습관 되서 자다가도 한국 와서도(A)

(2) 회상과 기억의 반복

E는 한국에 입국한지 3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더 지금의 상황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C는 북한을 떠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중국에 팔아버린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B는 한국에 와서 살면서 중국에서 임신했던 일과 3개월밖에 안된 자식을 자신이 직접 유산시키도록 만든 사람들과 그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극단적인 외상 사건들을

혼자 있을 때나 밤에, 그리고 탈북여성들끼리 모였을 때 회상하며 죄책감과 두려움, 공포심을 언어화하고 그 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전 생각에 겁이 난단 말예요 이전에 넘어오던 생각에 북한에서 넘어올 때 생각에 그리고 오는 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잖아요 올 때 제 자식이랑 동생 자식이랑 둘 데리고 왔거든요 소름이 끼쳐요 생각하면 산이라는 게 버랑이 이렇게 있는데 구석에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죽으니까 애 둘 데리고 구석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막 끼쳐요. 지금도 소름이 짹짹 끼쳐요(E).

(3) 경험의 회피

참여자들이 경험한 마음 졸임과 감옥살이의 경험은 한국에 정착하여 살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옥에서 독방에 투옥되었던 것, 당원과 대면하여 심리면접을 하게 되고, 구타를 당하고 또 당시에 느꼈던 모욕감과 공포심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기억은 당시의 상황과 연관되는 상황이나 장면에 부딪히면 당시 사건을 회상하게 만들었고, 결국 참여자들로 하여금 회피성향을 만들어내게 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일대일의 심층면접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도 북한에서 면대면으로 심문을 당하던 상황과 연관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과 유사한 상황, 공간, 그리고 대인관계 경험에 대해서는 직면하거나 도전하기 보다 회피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트라우마가 재경험되고 재현되는 것에 대한 소극적 대처라 할 수 있다.

감옥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불안해해요. 혼자 하는 거는. 혼자서 이렇게 단둘이 하면 북한에서 잡혀가면 혼자 이렇게 여럿 가둬놓고 혼자 하는 게 많아요. 독방도 무섭고 이래서 이런 건 좀 꺼려해요 단둘이 이런 건. 그런 데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한다면 다 싫어해요(C).

3.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과 심리정서적 반응

1)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그 강도는 다르다할지라도,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성질과 유사한 트라우

마를 다시 경험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대인관계에서의 거부감이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법과 제도적 차원의 불합리함과 불공정함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분노감을 경험할 때에는 극한의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일들을 회상하거나 연관시킴으로써 트라우마의 재현을 경험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과 부당한 대우

한국에 오면 배곶지 않으며 도망 다니거나 매를 맞지 않고 자유롭게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갔은 고생 끝에 입국하였지만, 사실 이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금 외상 사건을 기억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의 차별 혹은 물이해에 근거한 부당한 대우이다. 이들은 우선 말투와 언어의 차이로 탈북자임이 드러날 때 자신들을 동포라는 인식보다는 '오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일자리나 임금, 그리고 대우 면에서 차별과 냉대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북한과 중국에서 겪은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차별과 불공평함과 비교하게 되고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분노와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심각한 경우에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 이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기 오니까 기대 한 거 보다 달라요 나이 있지 북한사람이지 이러니까 차이를 엄청 줘요 막 기본이 없을 정도로 차이를 줘요 말투도 그렇고(중략). 눈에서 열이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 스트레스 자꾸 받으니까 눈 흰자에 침범해서 수술 한거예요 일이 눈에서 열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A)

북한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별 때 회사에서도 4대보험 들거나 하면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5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아 봤자 뭐하겠나. 그렇겠지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B)

(2) 낙인: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한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한국의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할 때 가장 화가 난다고 했다. 참여자들이 만난 사람들이탈북이주민을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며, 남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어 도와주어야 할 부담스런 존재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할 때 생사의 기로에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입국한 것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감을 겪었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친밀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는데 남한에서는 한 동포라고 생각해왔던 이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혼자라는 인식을 더욱 철저히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들은 결국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내 주민들 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로지 탈북여성들만의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북한에서 못 먹긴 못 먹었는가 보다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딱 거짓말 하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를 왜 중국에서 내려왔으면서 중국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해서 제가 한 소리가 우리 하고 싶어서 결혼 중국인이랑 한 거 아니고 자식 있지 않느냐 자식을 어떻게 갈라 놓냐 그래서 데려왔다 했더니 그 잘못된 정책, 금지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는거야 근데 말 안하고 그냥 박치고 나왔어요 옆에 여자는 저도 나라 혜택을 받으면서 살면서 그런 사람이 하는 소리가 탈북자를 정부에서 받지 말아야한다 이라는 거예요(C)

(3) 적과의 동침: 인신매매로 강제결혼한 배우자와 공생하는 현실

참여자들 중에는 남한에 입국한 이후 자녀가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난 배우자를 초청하여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편으로 중국에서 겪었던 배신과 위협감, 공포심 등에 대한 기억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한집에서 사는 것을 힘들어했다.

게다가 일부 참여자들은 남편의 행태가 변하지 않아 중국에서 겪었던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었다. B는 중국에서 만난 남편에게 많은 매를 맞았지만 남한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C는 중국에서의 남편에 대한 미움이 크지만, 장애인 될 수도 있다는 진단 때문에 자녀를 낳아 살고 있다. 반면 D는 중국남편이 한족이라 한국에서 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두 아들만 데려왔다. 하지만, 항상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 중 조선족과 결혼했던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미움이 큰 상태이지만 남편이 한족인 경우는 조선족 보다는 원망이 적었다. 하지만 한족은 언어문제로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 탈북여성 자신이 부양해야 하거나 혹은 한부모로서 자녀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들 모두 중국에서든 혹은 남한에서든 안정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가정도 중국에서의 가정생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겪은 외상 사건을 수시로 회상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부담감과 경험은 결국 이들의 트라우마 경험을 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하고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지는 못해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맘 있는 결혼 한 게 아니라 팔려온 결혼이라 와서도 행복한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있어서 데려왔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 일생은 그런 행복하다 그런 결혼 만족도를, 나올 수가 없어요. 만족도가. 한국 사람들하고 산다면 수준이 안 맞으니까 같이 못산다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 데려갈라면 애가 달려있지. 나이가 있지(C).

(4) 끝나지 않는 빈곤

참여자들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매우 가난했지만 모두가 가난하고 험벗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때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입국을 후회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함과 한국에 와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또

지역에서 수급비를 받고 있는 많은 한부모들이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참여자들만큼 가난하지 않은데 이런 가정들을 놔두고 참여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한국에 올 당시의 기대와 희망 대신 가난했지만 부모와 형제가 있었던 북한생활을 회상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울 때에. 며칠 전에도 7월 달에 거 솔직히 말해 해해에 어린이집 보내는 돈을 4개월 치 못 냈지, 그런데 거기 갔다 왔어요 밀린 돈을 내가 한 달에 12만원씩인데 그러니까 40 몇 만원이야 52만원됐어! 얼마 그래 52만원 맞다. 그걸 단번에 벌러니 다른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통지 오니까 좀 그렇더라고(D)

(5) 육체적 고통

참여자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신체적 질병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신체화 증상을 겪고 있었다. C는 감옥에서 겪은 고초 때문에 장애인 될 지경에 이르러 결국 시험관아기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하여 건강을 다소간 회복했다. A는 중국에서 겪은 불안과 공포 때문에 심장병을 갖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로 눈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건강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외상 사건의 경험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적으로는 개인이 인식하던 세계관과 기대했던 구조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또 신체적으로는 부인병과 각종 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에 입국하여 생활하다 예기치 않은 차별과 몰이해, 혹은 외상사건과 연관되는 외적 자극을 경험하면 정신적 혼란을 겪고 또 생리적으로도 변화를 겪기도 했다.

원래 내 똥똥해서 65키로까지 나갔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빠지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다 하는데 친한 친구들도 그럴 때 있는데 기분 상하는데 괜찮다가도 가슴에 영커서 저녁에 와서 내 자체가 수궁하려고 해도 마음에 안내려가요(C).

중국에 오래 정착하면 정착할수록 그 힘들 생활 더 오래 해요 그럼 병이 더 나고, 은둔 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여기 숨고 저기 숨고 할수록 병이 더 생기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 그걸 모르네? 난 중국에서 진단 다 받은 게 있었는데, 심장에서 피가 맘대로 뿜지 못하고 이러니 머리가 아파서 머리까지 피가 안 올라가서 계속 머리아파하지, 심장병, 협심증처럼 가슴 졸이고 (A).

(6) 용서불가

참여자들은 용서하지 못할 많은 대상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현재는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회상으로 힘들어했다. 밤에는 꿈속에서 경찰에게 쫓기고 매를 맞으며 붙잡힐까봐 불안해하다 잠에서 깨고, 낮에는 그 기억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분노감으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간혹 지역사회주민들의 몰이해에 부딪히면, 북한과 중국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시 상기하고 분노하며 용서불가의 마음을 느꼈다.

제일 용서가 안되는 부분이 중국에서 우리 일 시킨다고 하고 데려와 놓고 팔았잖아요. 인신매매 했잖아요 일 시킨다고 해놓고, 그래 팔아가지고 와서도 원하지 않는 성 관계를 해서 원하지 않는 애를 낳았는데 우리를 머느리 취급을 해주지 않고 아내 취급에 엄마 취급을 안해준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우털 여자 취급을 안 해준 게... 용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 용서도 없거니와 중국에 대한 용서도 없죠(C).

(7) 관계단절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들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관계를 철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지닌 탈북자들 간에는 중국에서의 결혼과 남한입국, 자식을 두고 온 것, 그리고 북한에 남은 가족이 겪을 부담감 등에 대한 아픔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 남한은 이해와 수용은 고사하고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 그리고 차별적 태도를 보여 이들을 아프게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남한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하였으며 오로지 탈북자간에만 소통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탈북여성들의 관계단절의 경험은 불신과 몰이해에 기초한 것으로서 단순히 관계를 철회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을 넘어 북한과 중국에서 탈북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채 이주하고, 또 중국에서도 체포의 우려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그 누구와도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경험과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의 형성은 적응의 지표이자 또 삶의 질 향상의 전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들이 대인관계에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안하죠 같은 북한사람들끼리 앉아 이야기하면 같은 맘이니까 다 하는데 남한사람들하고는. 너무 한국인들 우리한테 너무 거리를 두고 하니까 별로 만나지 않고 오게 되면 북한사람들끼리 같이 그러지 그 사람들 우리 거리 두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 거리 자연적으로 생기더라고. 아직 6-7년 됐는데도 친구 한명도 없어요. (C)

(8) 자살 의도(충동)

참여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C는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정작 혼자인데다 차별과 냉대를 경험하고, 앞으로 별다른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런 충동을 경험하곤 했다. B도 중국에서 남편에게 매를 맞고 한겨울에 맨발로 도망 나왔을 때 이런 충동을 경험했으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약물을 준비했었다.

이렇게 탈북여성들은 죽음을 목격한 경험이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남한에 입국할 만큼 절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만큼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외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개선되지 못하면 다시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극단적 의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사회 지원망의 확보와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나라를 벌써 세 개나 걸치고 왔는데 그 때마다 목숨을 내 놓고 우리 떠날 때마다 수면제 한통을 들고 떠나요 가다 잡히면 이걸 먹고 죽겠다 차라리 북한 잡혀가느니 이거

먹고 죽는 게 나오니까(B)

집에 있으면. 애가 타서 자살해 죽을라고 15층도 몇 번 올라가보고 약을 먹을라하다가 애를 딱 보면 야 내가 이거 놓고 죽으면 애가 어떻게 되나 나도 4살 때 혼자였거든요 애가 어떻게 되나. 내 어릴 적처럼 당하겠지. 내 아, 죽은 아를 생각해서라도 애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해도 애를 보고 참고 애를 보고 참고 이럴 때가 많아요(C).

2)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따른 심리정서적 반응

① 후회와 분노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차별과 몰이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몸에 아픈데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들은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오로지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적국이기에 때문에 동포의 국가로 온 것인데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선은 부정적이고 따갑기까지 하였다. 이런 경험은 중국에서 천대받던 기억을 불러 일으켜 결국 분노감과 후회감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에 온 거 후회할 때도 많아요. 북한에 형제들 있는데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마음은 편안하지 먹지를 못해도. 요즘 경기를 알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만약 형제들 있는데 있으면 어땠을까. 우리에게 좀이라도 관심을 더 줬으면 좀 안 나올까(C).

저같은 경우는 혼자 애들 키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화가 치밀고 제가 애를 잘 때려요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손을 데고 애매한 애들을 잡고. 치밀어 오를 때 있죠 화가. 뭐라고 잡지는 못하고요 딱 왜 이런지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고. 화는 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죠 불쑥불쑥 가깝가다 정확하게 짚지 못해요. 왜 화가 나는지 몰라요(D)

② 무 희망

참여자들은 남한에 올 때 많은 기대를 안고 왔지만 현재는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에서는 벗어났지만,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그리고 홀로 살아야 하는 현실과 하소연할 대상이 없는 데서 오는 의

로움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렇게 희망이 없다는 느낌은 남한으로의 입국이 이들의 최종선택이었던 점과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현실인식, 좋지 않은 건강과 자본주의 사회를 알면 알수록 탈빈곤이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한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제 그 희망이란 부분이 많이 좀 저버려진 거죠. 많이 저버려진 게 나 막 80%가 저버려졌다고 해야 하나 60%는 자유가 있으니까. 힘들죠(B)

어딜 애 데리고 남자 얻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어차피 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지만. 누구 탓 같고 내가 혼자 사는 게. 애들 탓 같기도 하고 남들 탓 같기도 하고. 항상 불만이, 항상 불만이 따라 오는 거죠. 내가..어떻게 말을 다 하겠어(D).

V. 결론

우리나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건물붕괴, KAL가 추락, 지하철 화재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성폭력피해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잠깐 언급되는 정도이다.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의료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후유증은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탈북여성들에게도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여성들은 아사를 목전에 둔 정도의 굶주림, 투옥, (성)폭력, 인신매매, 가족관계의 단절, 죽음의 목격 등 극단적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희망을 갖고 남한에 정착하였으나 정착 내적으로는 과거 기억의 회상과 악몽에 시달리고, 또 외적으로는 사회적 차별과 몰이해, 빈곤으로 절망하고 있다. 남한사회의 불수용과 낯선 환경,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의 외상에 대한 경험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여전히 가난하고, 인간

적 대우를 받고자 했으나 남한에서는 간혹 ‘오지 말아야 할 사람’, 혹은 ‘세금을 축내는 사람’으로 취급당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에서의 비인간적 대우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강제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도망치고 체포되기를 반복했지만, 자녀 때문에 그 남편을 초청하여 함께 살고 있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비참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중국 한족 남편을 부양하거나 혹은 중국에서처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남한 입국에 대한 후회와 분노,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철회와 무 희망, 용서불가,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탈북여성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민간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과 질환과 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병력 정취 및 확인의 어려움,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과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연속성 부족과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들과의 연계 미흡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16][18]. 그리고 이 방식들은 대부분 문제 중심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이 남한에서 경험한 문제의 근본에는 무엇보다 탈북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문제가 깔려 있다. 탈북여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한에서의 경험은 동포의식 보다는 불편하고 부족한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이었다. 특히 참여자의 대부분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만나는 빈곤한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탈북여성들은 이들에게 별다른 사회적 기여 없이 세금으로 집과 수급비를 지원받는 이주민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남한에서의 대인관계의 경험은, 비록 북한이나 중국에서 경험한 신체적, 물리적 위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다시 트라우마의 경험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무엇보다 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과 중국에서 극심한 배고픔과 빈곤을 경험했고 그 가난이 싫어서 탈북 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빈곤을 모두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무희망과 이런 상황으로 오게 한 대상 혹은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심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사회 정착 후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직업알선 서비스 외에 지속적인 취업 및 고용지속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민간기관과의 연계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탈북여성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신뢰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일상생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를 중단하거나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의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증상의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을 둘러싼 트라우마 경험과 그 재현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소수의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소수의 연구 참여자라 할지라도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러 분석에 임하는 경우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이론화와 객관성 확보를 통한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좀 더 충분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성록, *탈북자의 외상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 전우택, 윤덕용, 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7권, 제1호, pp.155-208, 2003.
- [3] 홍창영,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조영아,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2권, pp.467-484, 2005.

[5] 김병창,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정신건강정책포럼, 제4권, pp.4-37, 2010.

[6]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병율과 영향요인: 2007년 입구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pp.141-174, 2010.

[7] 박철욱, 안현의,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0권, 제4호, pp.1891-1906, 2009.

[8] 강혜성,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본분석보고서*, 2011.

[10] 김성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311-321, 2012.

[11] 신수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2] 서주연,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3]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한국사회학회, 2006.

[14] 김재엽, 최지현, 류원정, “PTSD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사회적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4호, pp.343-367, 2012.

[15] 정길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9.

[16] 임정빈,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pp.249-272, 2012.

[1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 2013.

[18] 정운태, 김원철, 김학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비스전달체계 분석틀에 근거하여”,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pp.185-201, 2012.

[19] 임목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충격적 사건에 대한 공포감과 재경험, 2006. <http://boog.naver.com>

[20] 최남희, “재난피해자 사후 지원: 재난피해자의 사후 복귀”,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pp.1-18, 2006.

[20] 김석향, 이은주, “북한여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pp.229-268, 2012.

저 자 소 개

성 정 현(Jung-Huyn Sung)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성한부모, 이혼문제, 가족복지